

- 안전문화운동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도민 안전의식(인식)수준 조사 결과보고서

2016. 12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도민 안전의식(인식) 수준 조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제1장 조사의 개요

제1장 조사의 개요

제1절 조사목적 및 활용 방안

1. 조사 목적

- 2015년도 설문조사 결과값(안전하다, 이상 43.5%) 비교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한 교육·홍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코자 함
 - 안전문화 정보 인지도 및 안전정책에 대한 안전상태 재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등 안전문화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

2. 조사의 내용

-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운동 추진실태 인지도 측정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 설문
- 설문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 제언
 - 안전문화 의식에 대한 인식 및 수준 분석
 -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조사의 범위
 - 공간 범위 : 충청남도 도민, 15개 시·군 공무원
 - 내용 범위 : 안전문화에 대한 정보인지도 실태조사·분석 및 정책 제언

3. 조사결과의 활용

- 안전문화 정책(교육, 훈련, 점검)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문화 생활화 정착 기대

제2절 조사설계 및 내용

1. 조사설계

○ 본 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음

〈표 1-2〉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방법	▶ 1:1 대면조사(일반도민), 배포 및 우편회수(공무원)
조사대상	▶ 충남도민 및 시·군 공무원
표본추출	▶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
유효표본	▶ 1,053명(충남도민 772명, 시군 공무원 281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pm 2.96\%$
조사기간	▶ 2016. 11. ~ 12월

2. 조사내용

○ 본 조사 실시를 위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3〉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안전의식	- 안전도(종합, 재난안전 유형별) - 안전의식(도민, 공무원 등, 근로자) - 안전문화교육(교육경험, 중점대상) - 안전정책 - 안전정보 경로 - 안전의식 제고방안
생활안전	- 안전행동 10문항
소방안전	- 안전행동 10문항
재난안전	- 안전행동 15문항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1-4〉 응답자의 특성

구분	표본수	비율
조사대상	시민	772
	공무원	281
	합계	1053
성별	남자	595
	여자	458
	합계	1053
연령	29세이하	153
	30-39세	276
	40-49세	273
	50-59세	230
	60-69세	96
	70세이상	24
	합계	1052
최종학력	중졸이하	74
	고졸	324
	전문대졸	189
	대졸	438
	대학원이상	18
	합계	1043
거주지역	천안시	241
	공주시	62
	보령시	58
	아산시	131
	서산시	85
	논산시	60
	당진시	81
	계룡시	37
	금산군	43
	부여군	45
	서천군	41
	청양군	30
	홍성군	58
	예산시	51
	태안군	30
	합계	1053

제2장 조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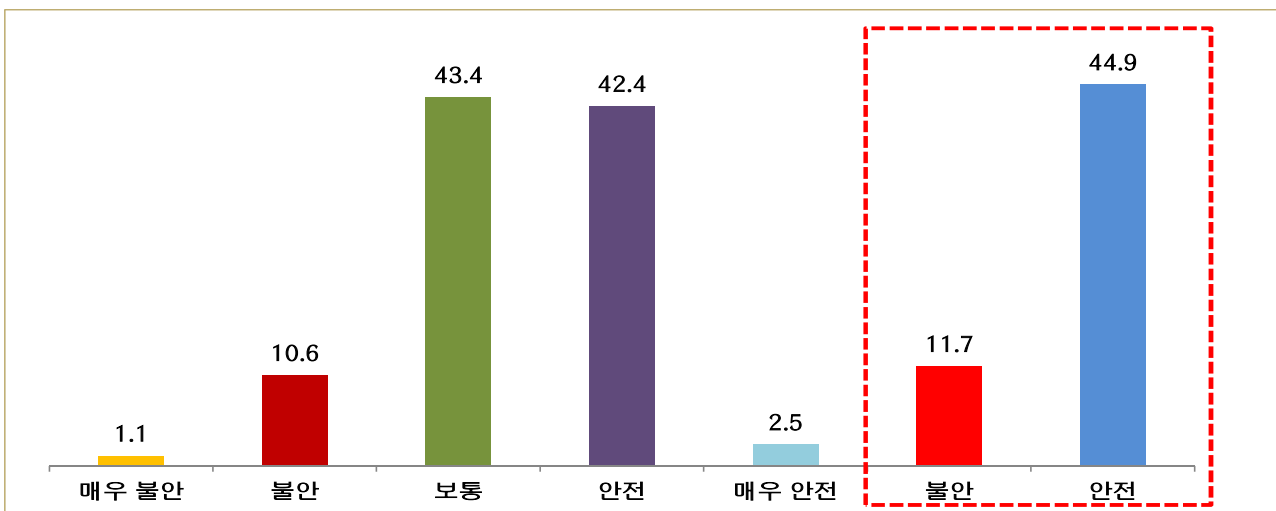
제2장 조사결과 요약

제1절 안전도 인식수준

1. 현재 충청남도의 전반적 안전도 인식수준 (문 1 - 1)

- ◆ 현재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안전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안전(44.9%) > 보통(43.4%) > 불안(11.7%)의 수준으로 나타남
- ◆ 2015년 대비하여 안전은 43.5%에서 44.9%로 1.4% P 증가(전년대비 약 3.2% 증가)하였으며, 불안은 26.4%에서 11.7%로 크게 완화되었음
- ◆ 응답자의 신분에 따라서는 도민의 경우 보통(44.7%) > 안전(42.5%) > 불안(12.8%)로 나타났으며, 시군 공무원의 경우 안전(51.2%) > 보통(39.9%) > 불안(8.9%)로 나타남
- ◆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안전(47.6%) > 보통(42.4%) > 불안(10.1%)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보통(44.8%) > 안전(41.2%) > 불안(14.0%)로 나타남
- ◆ 응답자의 지역에 따라서는 시의 경우 보통(45.7%) > 안전(41.9%) > 불안(12.5%)로 나타났으며, 군의 경우 안전(52.3%) > 보통(37.6%) > 불안(10.1%)으로 나타남
- ▶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매우 불안과 매우 안전과 같은 극단적 응답은 크게 줄어든 반면, 보통의 응답과 안전하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즉, 전반적인 안전도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보통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상당히 증가하고 매우 안전하다는 적극적 응답층이 줄어들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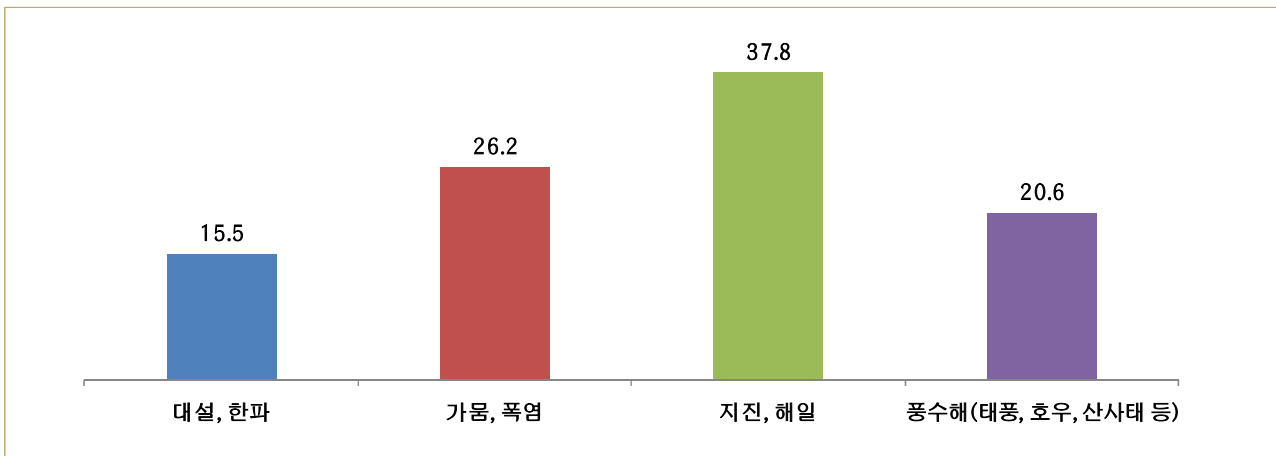
[그림 2-1] 현재 충청남도의 전반적 안전도 (문1)



2. 자연재난 분야 안전도 하위 영역 (문 1-8)

- ◆ 자연재난 분야 중 안전도가 가장 낮은 영역에 대한 응답 결과, 지진·해일(37.8%) > 가뭄·폭염(26.2%) > 풍수해(20.6%) > 대설·한파(15.5%) 순으로 나타남
- ◆ 신분에 따라서는 도민의 경우, 지진·해일(31.1%) = 가뭄·폭염(31.1%) > 풍수해(19.2%) > 대설·한파(18.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지진·해일(56.3%) > 풍수해(24.4%) > 가뭄·폭염(12.5%) > 대설·한파(6.8%)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지진·해일(40.5%) > 가뭄·폭염(26.6%) > 풍수해(20.1%) > 대설·한파(12.8%)로, 여자는 지진·해일(34.1%) > 가뭄·폭염(25.8%) > 풍수해(20.9%) > 대설·한파(19.2%)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 최근 발생한 지진의 영향과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해 지진·해일이 가장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진대책 수립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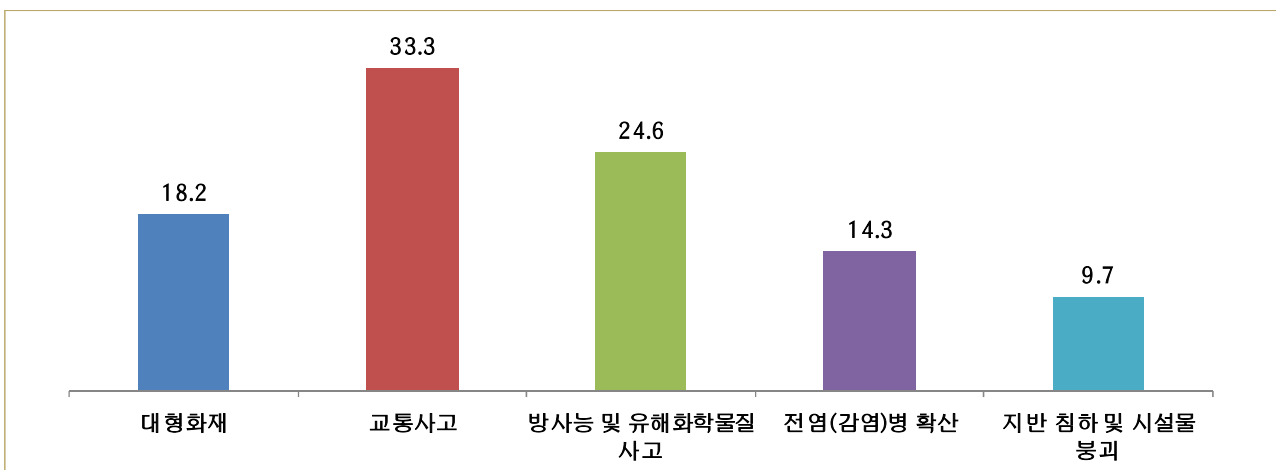
[그림 2-2] 자연재난 분야 안전도 하위 영역 (문1-8)



3. 사회재난 분야 안전도 하위 영역 (문 I -9)

- ◆ 사회재난 분야 중에서 안전도가 가장 낮은 영역에 대한 응답 결과, 교통사고(33.3%) >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24.6%) > 대형화재(18.2%) > 전염(감염)병 확산(14.3%) > 지반 침하 및 시설물 붕괴(9.7%)의 순으로 나타남
- ◆ 신분별로는 도민의 경우 교통사고(33.2%) >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23.3%) > 대형화재(20.5%) > 전염(감염)병 확산(13.7%) > 지반 침하 및 시설물 붕괴(9.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교통사고(33.6%) >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28.1%) > 전염(감염)병 확산(16.1%) > 대형화재(11.7%) > 지반 침하 및 시설물 붕괴(10.6%)로 차이를 보임
- ◆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교통사고(34.3%) >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26.5%) > 대형화재(14.4%) > 전염(감염)병 확산(14.1%) > 지반 침하 및 시설물 붕괴(10.7%)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교통사고(32.2%) > 대형화재(23.0%) >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22.3%) > 전염(감염)병 확산(14.1%) > 지반 침하 및 시설물 붕괴(8.4%)로 차이를 보임
- ▶ 모든 분야에서 교통사고와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가장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대형화재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나타남. 특히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경험 및 빈번한 사고사례를 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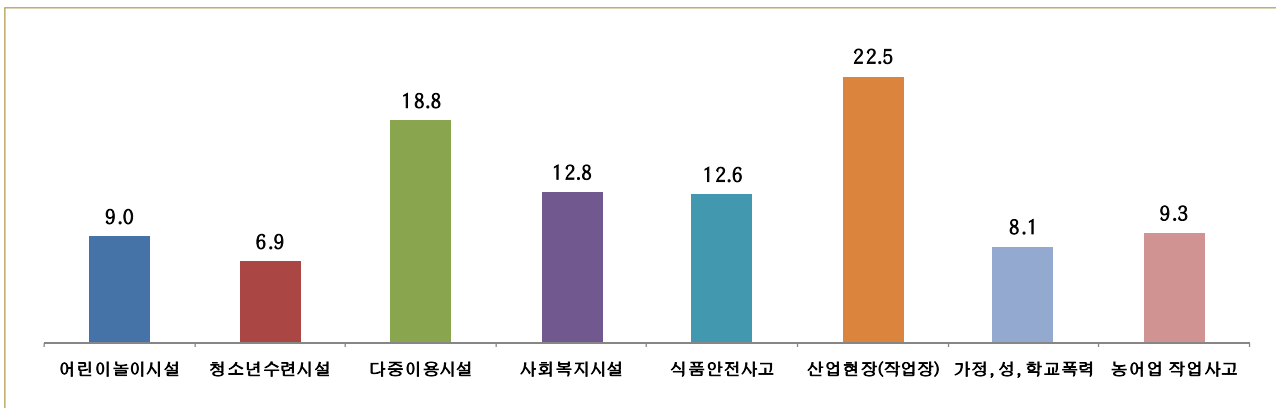
[그림 2-3] 사회재난 분야 안전도 하위 영역 (문I-9)



4. 생활안전 분야 안전도 하위 영역 (문 I - 10)

- ◆ 생활안전 분야 중에서 안전도가 가장 낮은 영역에 대한 응답 결과, 산업현장(22.5%) > 다중이용시설(18.8%) > 사회복지시설(12.8%) > 식품안전사고(12.6%) > 농어업 작업사고(9.3%) > 어린이놀이시설(9.0%) > 가정·성·학교폭력(8.1%) > 청소년수련시설(6.9%)의 순으로 나타남
 - ◆ 도민의 경우 산업현장(20.1%) > 다중이용시설(19.3%) > 식품안전사고(14.6%)의 순으로 높게 나온 반면, 공무원의 경우 산업현장(29.5%) > 농어업 작업사고(21.8%) > 다중이용시설(17.3%)로 차이를 보임
 - ◆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산업현장(27.0%) > 다중이용시설(17.7%) > 식품안전사고(12.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19.9%) > 산업현장(16.8%) > 사회복지시설(14.3%)로 차이를 보임
- ▶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도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림 2-4] 생활안전 분야 안전도 하위 영역 (문I-10)



제2절 안전의식 수준

1. 충청남도의 안전의식 수준 (문 I - 2)

- ◆ 현재 충청남도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51.0%) > 높다(32.1%) > 높지 않다(16.9%)의 수준으로 나타남
- ◆ 2015년 대비하여 높다는 의견은 33.7%에서 32.1%로 다소 낮아진 반면, 높지않다는 의견은 31.4%에서 16.9%로 높아짐
- ◆ 신분별로는 도민의 경우 높음(32.9%) > 높지 않음(14.6%)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높음(29.9%) > 높지 않음(23.2%)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높음(32.3%) > 높지 않음(15.3%)인 반면, 여자의 경우 높음(32.2%) > 높지 않음(18.7%)로 나타남
- ◆ 지역별로는 시의 경우 높음(30.6%) > 높지 않음(16.2%)으로 나타났으며, 군의 경우 높음(35.9%) > 높지 않음(18.8%)로 나타남
- ▶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의 안전의식 수준은 높다는 의견이 높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안전의식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소폭 감소하여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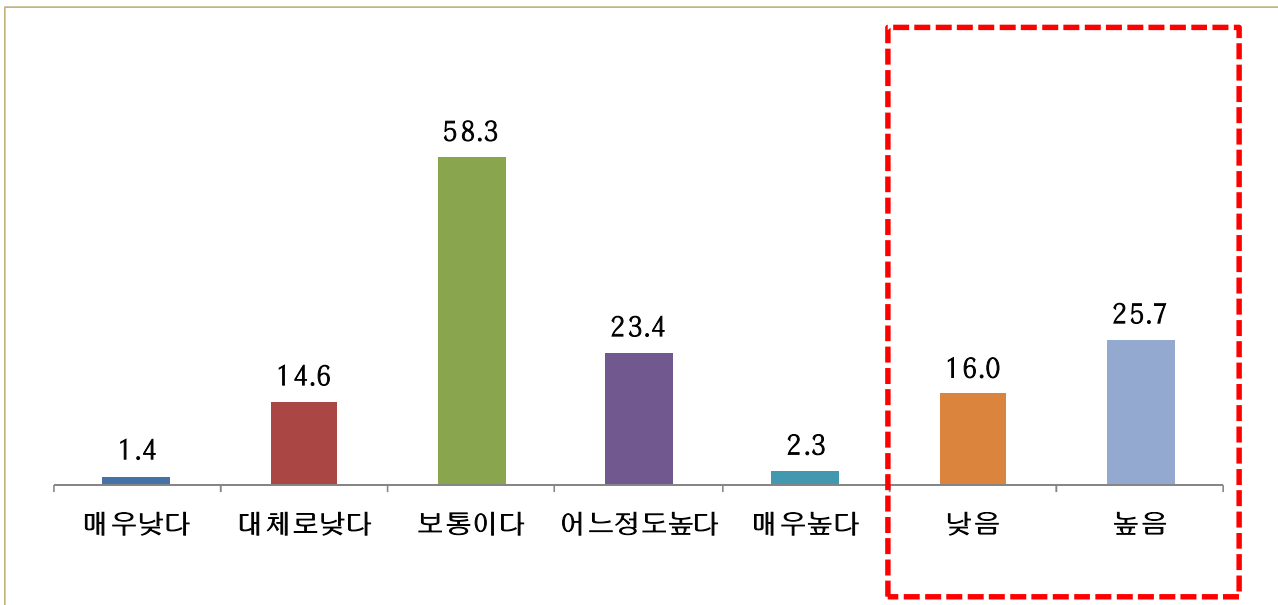
[그림 2-5] 충청남도의 안전의식 수준 (문I-2)



2. 충청남도 도민의 안전의식 인식수준 (문 1 - 3 - 1)

- ◆ 응답자가 생각하는 충청남도 도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58.3%) > 높다(25.7%) > 낮다 (16.0%)의 수준으로 나타남
- ◆ 2015년 대비하여 높다는 의견은 39.8%에서 25.7%로 다소 낮아진 반면, 낮다는 의견은 32.2%에서 16.0%으로 높아짐
- ◆ 신분별로는 도민의 경우 높음(27.5%) > 낮음(13.9%)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낮음(21.8%) > 높음(20.3%)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높음(26.4%) > 낮음(15.5%)인 반면, 여자의 경우 높음(25.0%) > 낮음(16.5%)로 나타남
- ◆ 지역별로는 시의 경우 높음(25.0%) > 낮음(16.2%)으로 나타났으며, 군의 경우 높음(27.3%) > 낮음(15.8%)로 나타남
- ▶ 응답자가 생각하는 도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안전의식 고양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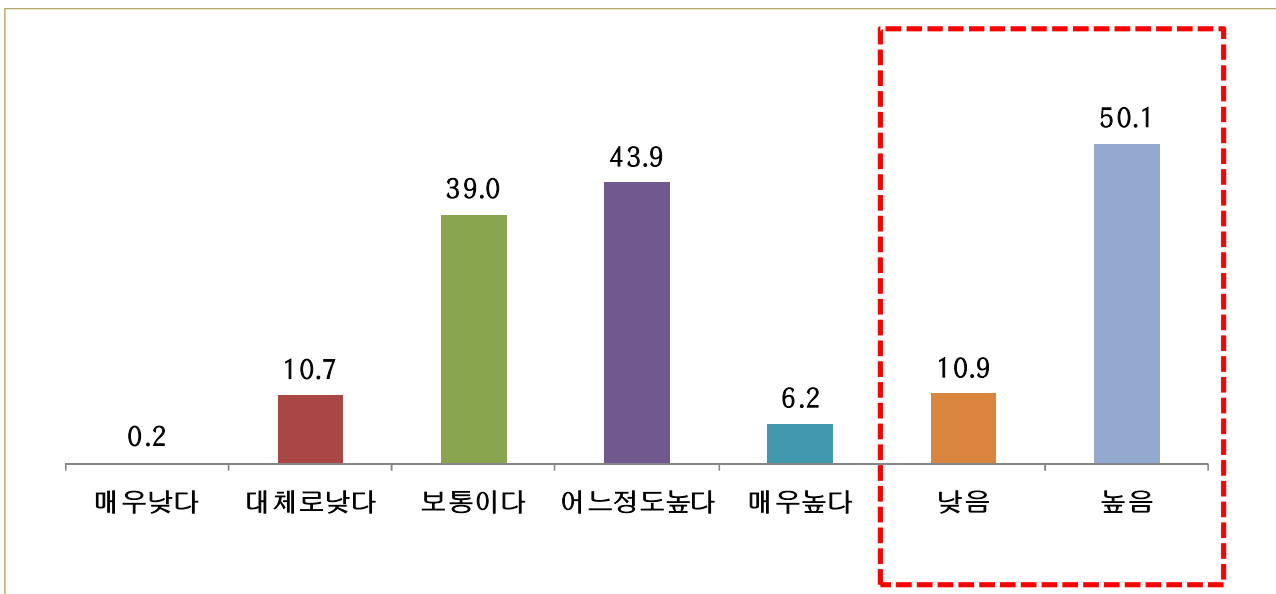
[그림 2-6] 충청남도 도민의 안전의식 수준 (문1-3-1)



3. 충청지역 공무원/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인식수준 (문 1-3-2)

- ◆ 응답자가 생각하는 충청남도 공무원/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39.0%) > 높다(50.1%) > 낮다 (10.9%)의 수준으로 나타남
- ◆ 2015년 대비하여 높다는 의견은 50.4%에서 50.1%로 다소 낮아진 반면, 낮다는 의견은 29.8%에서 10.9%으로 높아짐
- ◆ 신분별로는 도민의 경우 높음(47.1%) > 낮음(11.2%)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높음(58.5%) > 낮음(10.1%)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높음(54.1%) > 낮음(10.3%)인 반면, 여자의 경우 높음(45.5%) > 낮음(11.5%)로 나타남
- ◆ 지역별로는 시의 경우 높음(47.7%) > 낮음(11.3%)으로 나타났으며, 군의 경우 높음(56.6%) > 낮음(9.8%)로 나타남
- ▶ 응답자가 생각하는 공무원/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수준은 전년도에 비해 높다는 의견은 차이가 없으나 낮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폭 감소하여 충남지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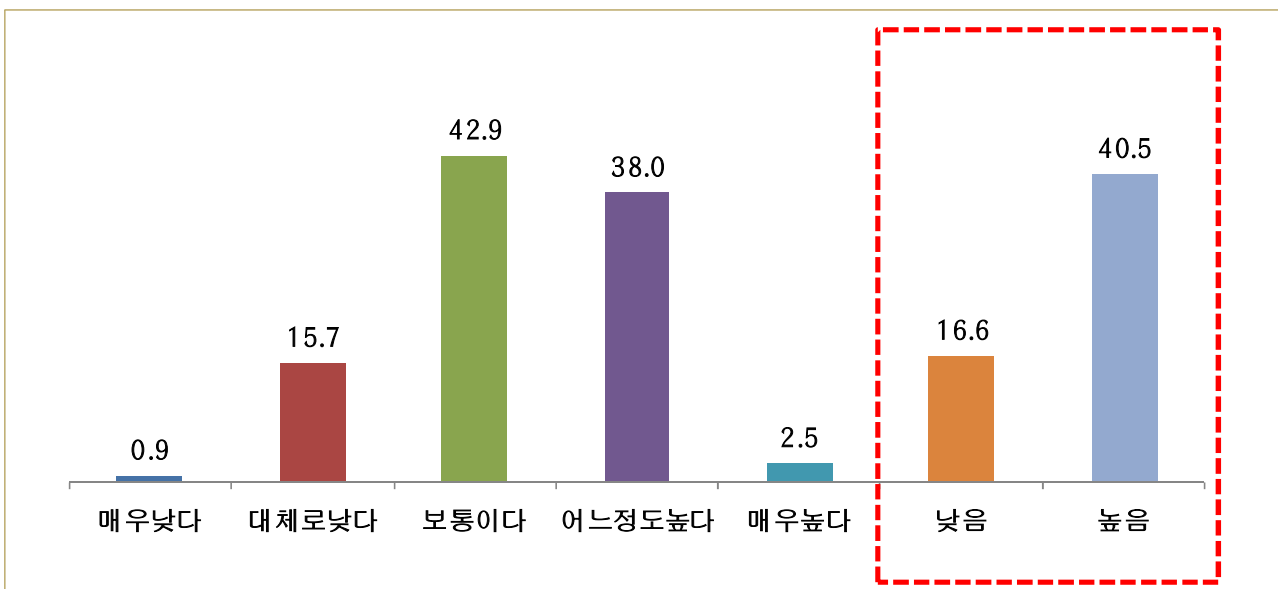
[그림 2-7] 충청지역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의 안전의식 수준 (문1-3-2)



4. 근로자의 안전의식 인식수준 (문 I - 3 - 3)

- ◆ 응답자가 생각하는 충청남도 내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42.9%) > 높다(40.5%) > 낮다 (16.6%)의 수준으로 나타남
- ◆ 2015년 대비하여 높다는 의견은 50.8%에서 40.5%로 낮아진 반면, 낮다는 의견은 25.2%에서 16.6%으로 높아짐
- ◆ 신분별로는 도민의 경우 높음(45.8%) > 낮음(13.4%)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낮음(25.6%) > 높음(25.5%)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높음(38.8%) > 낮음(18.1%)인 반면, 여자의 경우 높음(43.1%) > 낮음(14.4%)로 나타남
- ◆ 지역별로는 시의 경우 높음(42.1%) > 낮음(14.7%)으로 나타났으며, 군의 경우 높음(36.7%) > 낮음(21.0%)로 나타남
- ▶ 응답자가 생각하는 충남도내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전년도에 비해 낮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소 감소하여 충남도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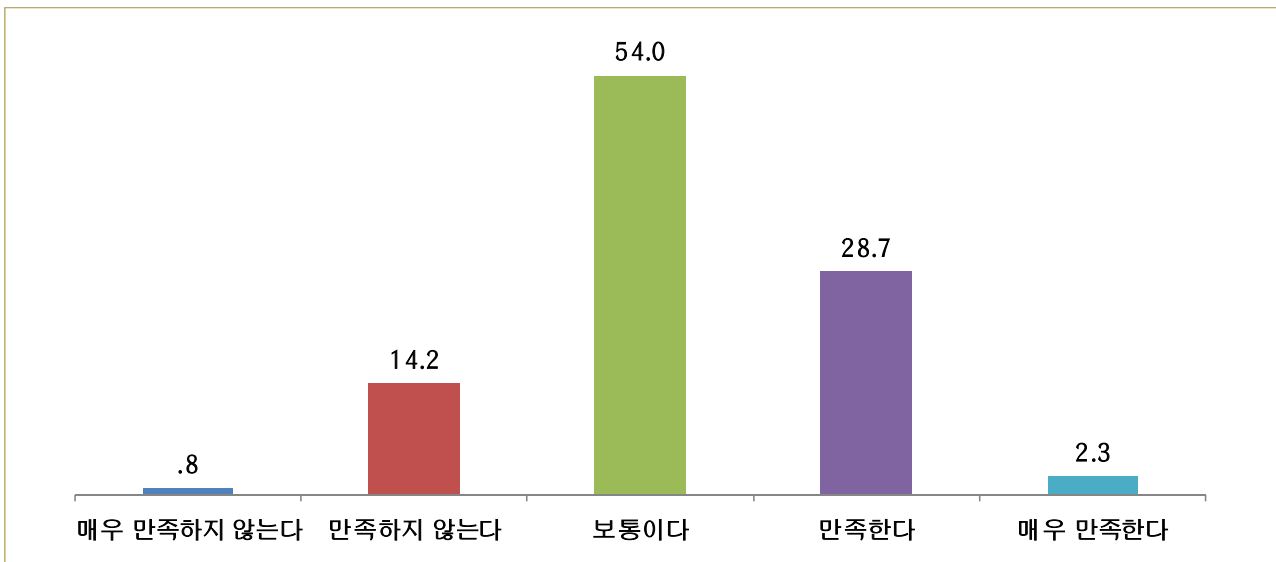
[그림 2-8]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문I-3-3)



5. 재난사고 등 위험 대처능력 (문 I -4)

- ◆ 평소 충남의 재난, 사고 등 위험 대처능력에 대한 조사 결과, 보통(54.0%) > 만족(31.0%) > 불만(15.0%)로 나타남
- ◆ 도민의 경우 만족(28.2%) > 불만(15.0%)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은 만족(38.4%) > 불만(15.0%)로 나타남
- ◆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만족(33.8%) > 불만(13.4%)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만족(27.6%) > 불만(16.5%)로 나타남
- ◆ 지역별로는 시의 경우 만족(28.1%) > 불만(14.4%)였으며, 군의 경우 만족(38.3%) > 불만 16.5%)로 나타남
- ▶ 전반적으로 평소 충청남도의 위험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충남도의 위험 대처능력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일반도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만족도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능력의 향상과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그림 2-9] 재난사고 등 위험 대처능력 (문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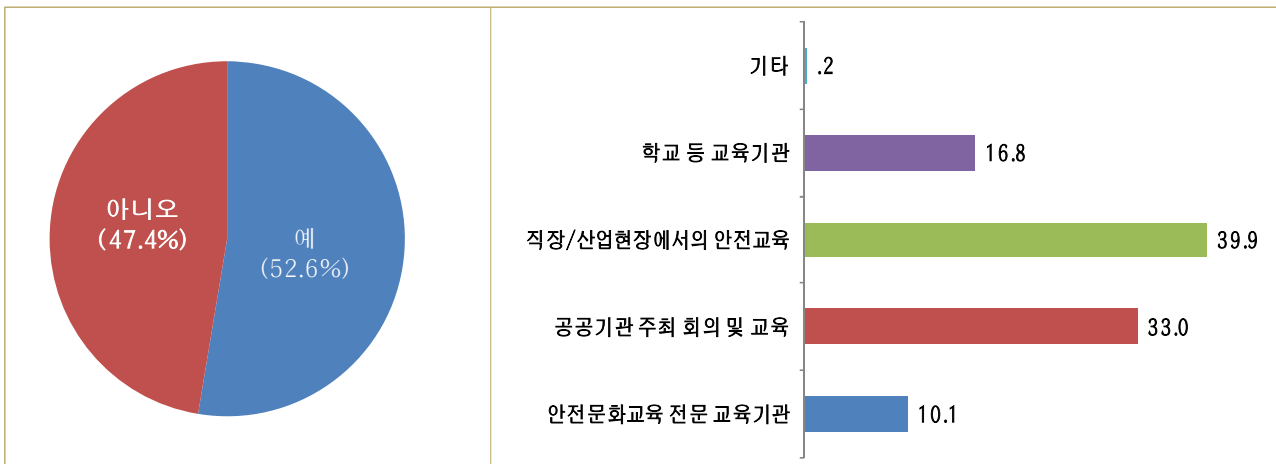


제3절 안전문화

1. 안전문화교육 경험 (문 1-5, 문 1-5-1)

- ◆ 충남 도민의 안전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예(52.6%) > 아니오(47.4%)보다 다소 높았으며, 교육을 받은 곳으로는 직장/산업현장(39.9%) > 공공기관 주최 회의 및 교육(33.0%) > 학교 등 교육기관(16.8%) > 안전문화 교육 전문기관(10.1%) > 기타(0.2%)의 순으로 나타남
- ▶ 전년도와 대비하여 안전문화교육 경험은 61.4%에서 52.6%로 다소 낮아졌으며, 교육장소도 전년도의 공공기관 주최 회의 및 교육 > 직장/산업현장 > 안전문화 교육 전문기관 등으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임. 따라서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난 직장/산업현장에서의 안전문화 교육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보장하고, 특히 안전문화 교육 전문기관의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모색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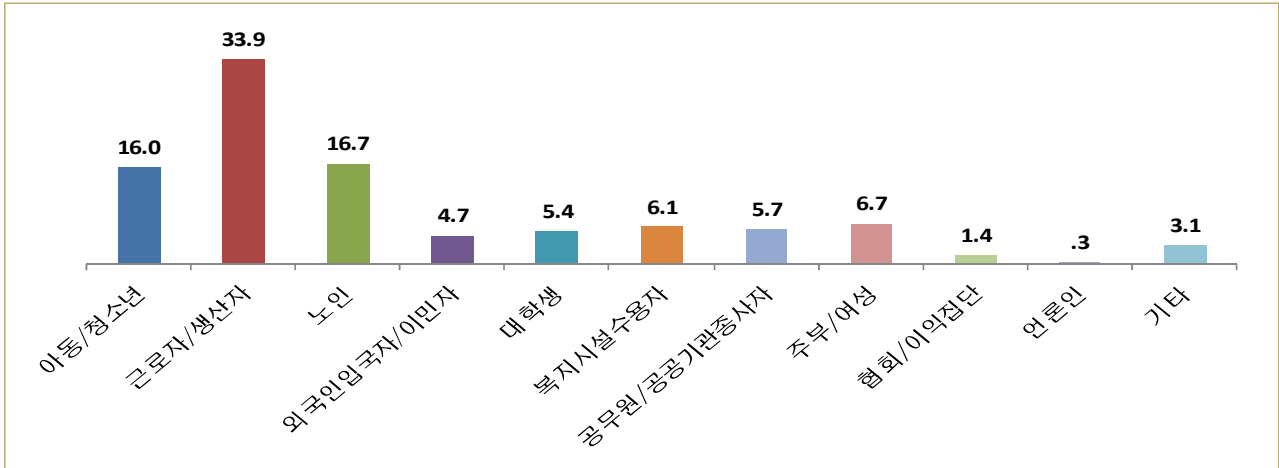
[그림 2-10] 안전문화 교육 경험 및 안전문화 교육 장소 (문1-5, 문1-5-1)



2. 안전문화교육 중점 대상 (문 1-6)

- ◆ 안전문화교육 중점 적용 대상 도민에 대해 일부 전체 도민 및 복수 응답을 제외한 1,050명의 응답 결과, 근로자/생산자(33.9%) > 노인(16.7%) > 아동/청소년(16.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산업현장의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청소년, 외국인입국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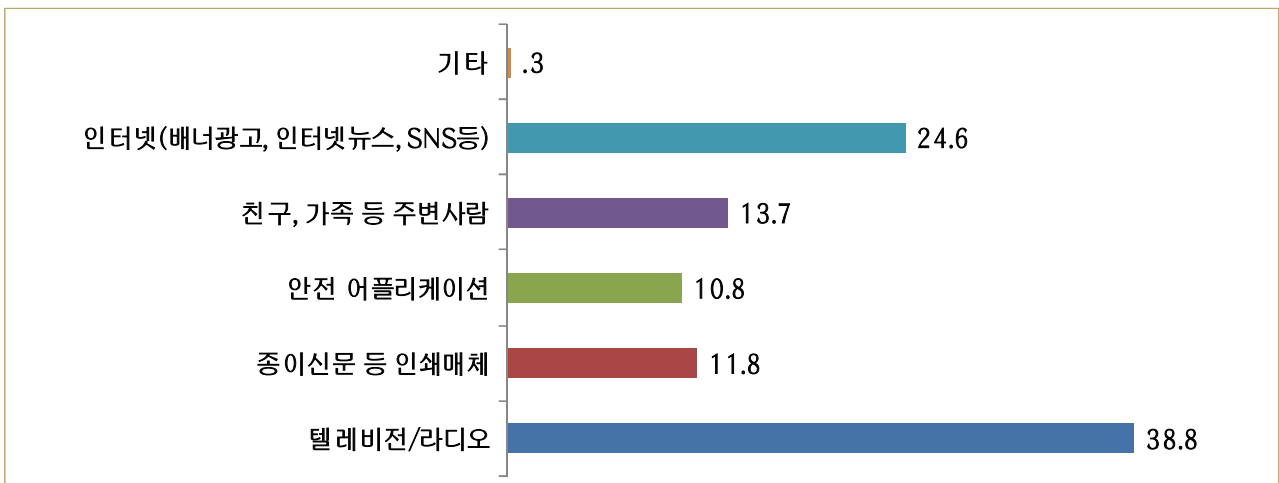
[그림 2-11] 안전문화교육 중점 대상 도민 (문1-6)



3. 안전 관련 정보 경로 (문 1 -12)

- ◆ 충남 도민의 안전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텔레비전/라디오(38.8%) > 인터넷 (24.6%) > 친구, 가족 등 주변사람(13.7%) > 종이신문 등 인쇄매체(11.8%) > 안전 어플리케이션 (10.8%) > 기타(0.3%)의 순으로 나타남
-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련 정보는 주로 텔레비전/라디오 등 방송을 통해 접하고 있으며, 인터넷뉴스나 SNS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홍보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정보전달 및 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림 2-12] 안전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로 (문1-12)



제3장 결론 및 제언

제3장 결론 및 제언

1. 안전도 및 안전의식 수준 제고 방안

- 전반적인 안전도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보통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상당히 증가하고 매우 안전하다는 적극적 응답층이 줄어들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발생한 지진의 영향과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해 지진·해일이 가장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진대책 수립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모든 분야에서 교통사고와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가장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대형화재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나타남. 특히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경험 및 빈번한 사고 사례를 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함
- 한편,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의 안전의식 수준은 높다는 의견이 높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안전의식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소폭 감소하여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충청남도의 재난, 사고 등 위험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충남도의 위험 대처능력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일반도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만족도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능력의 향상과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2. 안전문화교육 및 안전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 전년도와 대비하여 안전문화교육 경험은 61.4%에서 52.6%로 다소 낮아졌으며, 교육장소도 전년도의 공공기관 주최 회의 및 교육 > 직장/산업현장 > 안전문화 교육 전문기관 등으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임. 따라서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난 직장/산업현장에서의 안전문화 교육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보장하고, 특히 안전문화 교육

전문기관의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산업현장의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청소년, 외국인입국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전관련 정보는 주로 텔레비전/라디오 등 방송을 통해 접하고 있으며, 인터넷뉴스나 SNS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홍보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정보전달 및 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재난안전 분야별 행동요령 및 안전문화 교육 활성화 방안

- 충청남도의 생활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분야의 응답 결과를 고려할 때, 대응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숙지는 양호한 편이나,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 활동 및 교육, 실습 경험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교육의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집단별로는 60세 이상의 고령인구, 여성, 저학력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 요구되며,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군과 대비하여 시 지역에서 안전문화교육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자연재난 등에 대비하여 가족과 대피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의 시민 중심의 예방·대비활동 프로그램과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안전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충남 지역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고양하는 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요구됨